Ⅰ. 연 혁

History

1. 연 혁
History

1. 연 혁

1. 삼국시대

백제 문주왕 때(서기 475년)군 이름을 욕내(欲乃, 浴川)라 칭했고, 당시의 읍은 현 죽곡면 당동리에 두었다.

2. 통일신라시대

경덕왕 16년(서기 757년) 곡성으로 개칭했고 그 예하에 지금의 순천시 주암 · 쌍암 일대인 부유(富有)현과 구례군 지역인 구차례(仇次禮)현, 그리고 화순군 동복면 지역인 동복(同福)현을 영속했다.

3. 고려시대

고려 초 승평군(昇平郡;현 순천시)에 속했다가 현종 9년(서기 1018년) 나주목의 속군으로 이속되었고, 명종 2년(서기 1172년) 감무(監務)가 파견되었으며, 고려 말 공양왕 1년(서기 1389년)왜구의 침입으로 읍이 함락돼 죽곡면 당동리 지역에 위치했던 읍치가 동악산 아래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다.

4. 조선시대

조선 태종 13년(서기 1413년) 현으로 개칭했으나 정유재란(서기 1597년) 때 읍이 탕진돼 선조 30년(서기 1597년) 남원 도호부에 합속됐다가 광해군 원년(서기 1609년) 다시 분리 독립해 곡성현으로 복설됐다.

5. 근대초기

광무 3년(서기 1899년) 행정구역 명칭을 곡성군으로 개칭해 군수를 두었고, 서기 1914년 담양 · 구례 · 순천 · 남원 일부를 편입해 11개면 126리로 개편됐다.

1909년 옥과면 현내면이 창평군 옥산면으로, 입석면은 입면으로, 화석면은 화면으로, 겸방면은 겸면으로, 지좌곡면은 지면으로, 수대곡면은 수면으로 개칭되었다.

6. 현 재

1979년 5월 1일 대통령령 제 9409호로 곡성면이 읍으로 승격돼 11개면에서 1읍 10면 126리로 개편된 후, 1983년 2월 15일 행정 구역 개편으로 석곡면 운룡리가 순천시 주암면에 편입됨에 따라 1읍 10면 125리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.